

‘가족예능 베끼기’ 해도해도 너무해

‘아빠!’ 인기 정점 찍자 너도나도 ‘자기야-백년손님’ ‘맘마미아’ 등 시부모 이어 장모 등 가족 총출동 “무작정 따라하기…오래 못갈 것”

MBC ‘일밤-아빠! 어디가?’로 ‘가족 예능프로그램’의 인기가 정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각 방송사가 비슷한 포맷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시선 속에서 “지나친 포맷 베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TV 속 예능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스타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시부모까지 온 가족 구성원이 총출동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스타와 그 엄마가 동반 출연하는 KBS 2TV ‘해피선데이-맘마미아’는 최근 스튜디오에서 야외 여행으로 콘셉트를 변경해



‘잘되면 무조건 따라하고 보자?’ 스타 가족들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방송사들이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연예인 사위와 장모의 이야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자기야-백년손님’(왼쪽 사진), 스타와 부모가 출연하는 KBS 2TV ‘해피선데이-맘마미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는 ‘자기야-백년손님’으로 제목은 물론 포맷까지 바뀐 남자출연자와 그의 장모 또는 장인과 벌이는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처월드’(처가매를 일컫는 신조어)를 카메라에 담고 있다.

MBC ‘세바퀴’도 연예인 가족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코너를 신설해 부모와 자식,



고부 갈등 등을 다루고 있다.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엘컴 투 시월드’, JTBC의 ‘고부 스캔들’, ‘유자식 상팔자’ 등을 합하면 현재 안방극장에서 방송되는 가족 예능프로그램은 10여 편에 달한다.

이처럼 TV 속에 가족 예능프로그램이 이미 넘쳐나고 있지만 유사한 소재와 구성

을 내세운 후속 프로그램은 꾸준히 기획되고 있다. 실제로 KBS는 현재 개그맨 이휘재, 격투기 선수 추성훈, 가수 이현우 등을 앞세운 파일럿 프로그램 ‘아빠의 자격’(가제)을 준비 중이다. 아빠들이 가사에 직접 도전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 관찰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비슷한 소재와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면서 이를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국 관계자는 “특정 포맷이 인기가 있으면 일단 따라 하고 보자는 심리가 아쉽다”면서 “비슷한 포맷의 예능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시청자가 느끼는 피로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많은 프로그램의 수명도 짧아질 것은 당연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예인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안티’의 시선도 많아져 제작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한때 가수였던 서세원 아들 8일 결혼

‘미로’로 활동했던 서동천씨
일 와세다대 동창생과 웨딩

방송인 서세원(사진)·서정희 부부가 며느리를 맞는다.

두 사람의 아들이자 ‘미로’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했던 서동천(28) 씨가 8일 대학 동창생과 결혼한다. 서 씨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암동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일본 와세다대 동창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5일 “동천 씨가 가족과 친구 등을 초대해 소박하고 겸손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신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동천 씨는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부 재학 중 미로라는 예명으로 2007년 연예계에 데뷔, 3인조 남성밴드 미로밴드의 리더로 활동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미로밴드 1집 ‘네버



랜드’에 수록된 전 곡을 작사·작곡·편곡하는 등 남다른 음악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학업을 위해 연예계를 떠난 뒤 평범한 삶을 살며 가정을 꾸리게 됐다.

연예계 관계자는 “서세원·서정희 부부가 딸방 동주 씨의 결혼에 이어 아들 결혼까지 상당히 기다려 왔다”면서 “사위와 예비머느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세원은 채널A ‘서세원 남희석의 여러 가지 연구소’를 통해 6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뒤 조만간 다른 프로그램으로 안방극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셀 위 댄스?’ 연기자 다니엘 헤니가 5일 오전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스파이’ 제작발표회에서 진행할 달은 박진영에게 재미있는 장난을 치고 있다.



개봉 4일만에 300만 관객을 동원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설국열차’.

사진제공 | CJ E&M

‘설국열차’ 세계 질주…佛부터 당긴다

수출 계약 167개국 중 프랑스서 첫 개봉
영화 원작 만화가 탄생한 곳…인기 관심

‘설국열차’가 향하는 제2의 기착지는 프랑스다.

1일 개봉해 한국영화 역대 최단 기간(4일간) 300만 관객을 돌파한 ‘설국열차’가 세계 시장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개봉 전 미주 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167개국에 수출된 ‘설국열차’가 해외 개봉의 첫 지역으로 프랑스를 택했다.

‘설국열차’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 프랑스에서 개봉할 전망이다. 시기가 확정되면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등 주연배우들이 현지로 날아가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현지 배급은 ‘박쥐’ ‘황해’ 등 한국영화를 유럽에 소개해 온 와일드사이드사가 맡는다. 설국열차의 한 제작 관계자는 “와일드사이드사가 프랑스는 물론 동유럽과 남미 지역 배급까지 담당해 이 지역에서 서도 순차 개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설국열차’의 원작이 된 동명의

만화가 탄생한 곳, 이런 이유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드러냈던 지역 중 하나였다. 또 이미 ‘괴물’로 프랑스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상영돼 호평받은 ‘마더’로 유럽에서 인정받은 봉준호 감독의 첫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해외의 호평도 힘이 되고 있다. 미국 영화주간지 버라이어티는 “천재 장르감독의 야심찬 미래 서사시”라며 “관객의 지적 수준을 존중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썼다. 북미 지역 최대 영화전문 커뮤니티 사이트 트위치필름도 “지금까지 한국감독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영어영화”라며 “봉준호는 이미 자신의 게임에서 할리우드를 이겼다”고 호평했다.

한편 ‘설국열차’의 해외 개봉 버전은 국내 상영본과는 내용이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 관계자는 “북미 지역 등에서는 상영시간이 줄어들어, 크지 않지만 국내 버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의리의 김준수

내한해 도와준 제리 슬로터에 감사 뜻
부산 콘서트 앞서 테마파크 투어 약속

그를 JYJ의 김준수(사진)가 자신을 아끼없이 지원한 미국 출신의 유명 안무가에게 ‘착한 선물’을 해 화제다.

김준수는 3·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2집 기념 아시아 투어 ‘인크레더블’ 공연을 펼쳤다. 이 무대에는 세계적인 안무가 제리 슬로터와 그의 댄스팀이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시했다. 김준수는 이들을 위해 ‘데파르크 투어’라는 ‘소박한’ 약속을 이행키로 했다.

제리 슬로터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의 월드투어 총감독이자 제니퍼 로페즈, 리키 마틴, 스파이스 걸스 등의 안무가이다. JYJ의 월드와이드 앨범, 김준수의 솔로 1집에도 참여했다.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에 김준수는 제리 슬로터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려 했다. 마침 제리 슬로터는 서울 도심의 한 유명 테마파크에 가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이야기했고, 결국 김준수는 제리 슬로터 일행의 투어를 책임지기로 했다. 김준수는 부산 공연 뒤 14일부터 9월 초까지 뮤지컬 ‘엘리자벳’ 무대에 오르고, 9월 28일엔 호주 시드니에서 공연한다. 이후 다시 해외투어를 이어나간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잘나가는 진짜 사나이, 해외 파병?

10월께 레바논·소말리아 부대 등 검토

MBC ‘일밤-진짜 사나이’가 해외 파병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5일 MBC 등에 따르면 ‘진짜 사나이’ 김수로, 서경석, 장혁, 박형식 등이 10월 해외 파병 프로젝트를 펼친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프로젝트 내용을 출연자들에게 이미 알렸고, 이번 주 안에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소속 부대와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일정은 드라마 등 각자의 스케줄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이 고려 중인 부대로는 레바논의 동맹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아이티의 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의 오시노부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크부대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사가 파병 부대를 촬영한 적은 있었지만 예능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것은 드문 경우다”며 “이동수단, 숙식, 안전 등을 고려해 촬영에 원활한 부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진짜 사나이’ 출연진은 그동안 백마부대 전격대대, 3포병여단 화룡대대, 해룡연대, 7공병여단 청룡대대, 27사단 이기자부대 등 육군에서 군 복무를 체험해 왔다.

백술미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유아프로그램 MBC ‘뽀뽀뽀’ 32년만에 폐지

국내 대표적 유아프로그램인 MBC ‘뽀뽀뽀’가 사라진다. 1981년 첫 방송한 이후 32년 만이다. MBC는 최근 ‘뽀뽀뽀 아이조아’를 폐지키로 하고 ‘뽕?뽕! 키즈스쿨’을 방송한다고 5일 밝혔다. ‘뽀뽀뽀’는 1981년 5월25일 첫 방송돼 7일 7754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MC인 ‘뽀미언니’를 스타로 등극시키며 1대 왕영을 비롯해 최유라, 이의정, 조여정 등 모두 24명의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로 시작하는 주제는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것은 물론 국민적 동요가 되기도 했다. 방송 초기 출연한 ‘뽀식이’ 이윤석과 ‘뽀병이’ 김병조는 코미디언으로서 인기를 실감했고 개그맨 서경석, 이윤석, 김학도 등도 이름을 얻었다. 슈퍼주니어 신동과 신세경, 미쓰에이 민, 류덕환 등도 어린 시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추억을 지니고 있다.

유재석 아내 나경은 아나, 육아 전념 위해 사표

개그맨 유재석의 아내인 나경은 MBC 아나운서가 사의를 표했다. 5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은 아나운서는 최근 아나운서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표는 이날 오후 수리됐다. 지난해 9월 육아휴직 발령을 받은 나경은 아나운서는 일정대로라면 곧 복귀해야 하지만 가정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더걸스 전 멤버 선미, 3년7개월만에 솔로 컴백

걸그룹 원더걸스의 전 멤버 선미가 3년 7개월의 공백을 깨고 솔로 가수로 컴백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선미가 이달 말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미의 솔로 앨범은 박진영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다. 박진영은 현재 선미의 솔로 곡, 안무, 뮤직비디오, 의상 등 모든 분야를 직접 기획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박진영이 2000년 가수 박지윤의 ‘성인식’ 이후 13년 만에 여성 솔로 댄스 가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을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오늘의 날씨

8월 6일 화요일 (음력 6월 30일)

